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이 글은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의 이른바 ‘내적 통합(innere Einheit)’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독일 사회 통합의 현실이 남북한 사회 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독일인들이 통일을 무조건,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들의 생활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다. 하지만 동서독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동독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 그래서 독일 사회는 ‘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독일 사회가 통일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적 통합은 성공하지 못했다. 남북한 사람들은 다양한 접촉 지대에서 상이한 양상과 특성을 가진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호작용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38).

** 이 연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연구진 가운데 이우영 교수님과 필자가 2013년 10월 14~20일 독일의 베를린과 라이프치히 등 구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경험한 독일인들과 관련 독일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통역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의 정시형 조교가 맡아주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우영 교수님과 정시형 조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소외감’은 큰 문제이다. 남북한 사람들 마음의 통합 문제는 오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단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시민사회는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독일 통일, ‘내적 통합’, 남북한 사회 통합, 접촉 지대, 마음의 통합

1. 문제 제기

한반도 분단이 2015년이면 70년이 된다. 남북한 각각은 자기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적대성을 통해서 확인하려 했다. 분단 70년의 역사는 한국전쟁 외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다. 물론 지난 70년의 역사가 대립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적도 있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 선언 등은 대화와 협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남북한의 냉전적 대립 구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은 서로를 비방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독일 통일이 2014년으로 25주년이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홉스봄(Hobsbawm)은 『극단의 시대』에서 20세기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이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한 세기를 넘기지 못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한 세기 동안의 역사적 실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동독의 시민 사회는 동독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을 공식화했으며, 곧 이는 독일 통일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분명 분단은 종식되었기에 동서독 사이에 냉전적 대립관계는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동서독 시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었다.

독일 통일은 통일이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니라 긴 과정(process)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통일 25년이 지났지만 동서독의 사회 통합은 여전히 독일 사회의 주요 이슈이다.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를 ‘베씨(Wessi)’와 ‘오씨(Ossi)’로 부르면서 비난했다. 서독 시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독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동독 시민의 눈으로 서독 시민의 모습을 보면, 서독 시민은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익숙한 ‘돈만 아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비록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시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 독일은 하나의 국가가 되었지만, 사회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은 강제로 하나가 될 생각은 없는 듯하다. 독일은 전체주의를 경험한 사회이다. 독일 사회는 ‘강제적인 하나’가 가진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팀이 만난 동서독의 시민들과 지식인들은 동서독 시민들 간의 사회 통합 문제는 오히려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동서독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를 강조했다.

이 글은 독일 통일 25년이 되는 오늘날 독일의 이른바 ‘내적 통합 (innere Einheit)’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독일 사회 통합의 현실이 남북한 사회 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단 70년의 역사는 결코 남북한 단절의 역사가 아니었다.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물론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만남의 구체적 양상이 달라진다.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대립, 갈등, 충돌이, 화해 국면에는 대화와 협력이 지배적인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만남의 형태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만남이 항상성(consistency)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만남의 양상과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과 해외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항상성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 사회 통합의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성을 지니게 되었다. 현재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의 유형을 살펴보고, 독일 사례를 기초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누가(Who), 어떻게(How)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일 ‘내적 통합’의 현주소

독일인들은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통일 이후 15년이 지났을 때 설문을 살펴보면 동독 지역에서 통일 독일이 이익이 된다는 답변은 18~49세에서 34%를 차지한 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36%나 되었다. 50~59세의 경우에는 서독 지역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40%, 동독 지역이 손실이라는 생각이 42%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표 1>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

“당신은 독일 통일 15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의 응답 (단위: %)

구분	18~49세		50~59세		60~85세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이익	34	31	28	40	33	25
손해	36	36	42	30	29	29
이익과 손해 모두	26	25	28	14	32	41
잘모르겠다/ 무응답	5	9	2	16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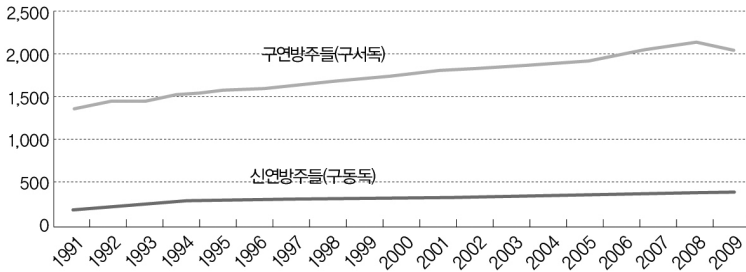
자료: SFZ/Leben 2005 survey; Marta Zawilska-Florczuk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srodek sutow Wschodnich(OSW)에서 재인용.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사이가 통일을 경험한 세대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노동가능 인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60~85세 사이의 노인들은 이익과 손실 모두 있었다는 답변이 높았다. 이 세대의 답변은 젊은 시절부터 분단을 경험했고, 40대 후반 이후 통일을 모두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 설문지 답변을 보면, 세대 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이 독일인들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독일의 인구사회조사(Allbus)의 1980~2010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에게 독일 통일 이후 삶에 대해서 물었다. “하나의 국가, 독일에서 매우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와 거의 그렇다)이 동독 지역에서는 약 80%를 상회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약 20% 정도로 조사되었다.¹⁾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들이 분명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림 1> 동서독의 GDP

(단위: 10억 유로)



자료: Marta Zawilska-Florczuk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środek studiów Wschodnich(OSW).

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 이후 사회적 격차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1994년 이후에는 갑자기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까지 40%를 상회 하던 답변이 그 이후 1998년에는 30%대로 감소한다. 2010년에도 남성이 30%, 여성이 23% 내외로 역시 낮았다.²⁾ 이는 통일 이후 독일인의 상당수가 사회적 격차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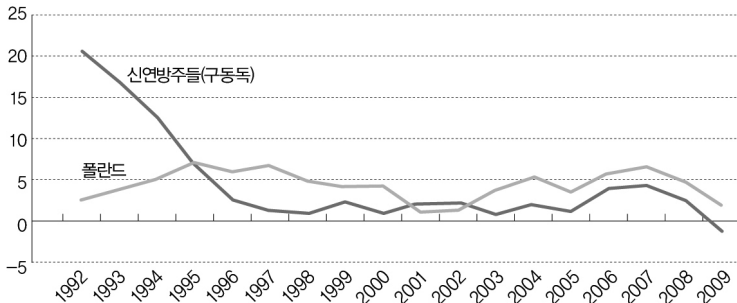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 역시 문제이다. 동독 지역의 GDP 성장률은 서독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그림 1> 참조). 동독 지역의 GDP

1) Allbus(Die allgemeine Bevölkerungsumfrage der Sozialwissenschaften) 홈페이지에 현재 공급되는 설문 내용과 결과는 모두 독일인에 대해서 묻는 설문만 나와 있다. 한신대 민주정책사회연구원의 황규성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통계는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이 분리된 통계로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황규성 논문에서 인용된 것을 재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황규성, "통일독일 불평등과 사회국가의 정당성," 『독일연구』, 25호(2013), 76쪽.

2) Allbus(Die allgemeine Bevölkerungsumfrage der Sozialwissenschaften), Supplement zur Fragebogendokumentation ALLBUS-Kumulation 1980-2010. Studien-Nr. 4574. pp.148~149.

<그림 2> 동독과 폴란드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Marta Zawilska-Florczuk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środek studiów Wschodnich(O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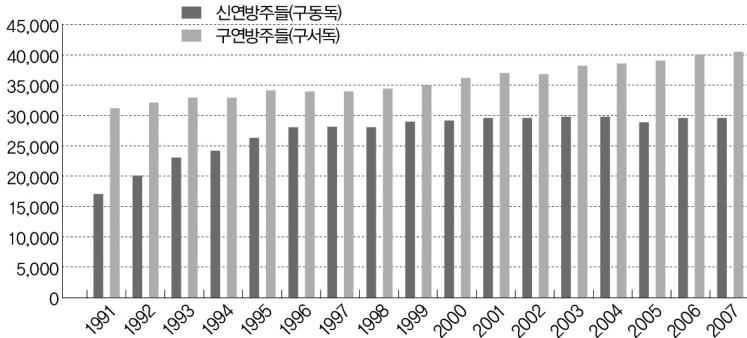
성장률은 통일 직후 급상승했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폴란드와 비교해도 낮아진다(<그림 2> 참조). 자본주의와 통합한 국가보다 체제전환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점은 동서독의 경제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동독 지역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91년 1인당 GDP는 20년 사이에 3배 정도 상승했다. 그렇지만 동독 지역 시민들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서독 지역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90~95%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통일 직후와 비교할 때 그 간극이 좁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구동독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은 '탈산업화'를 경험한다(Prieue and Hickel, 1994). 구동독 지역의 산업 시설은 통일 이후 경쟁력을 갖기 힘들었다. 서독 지역의 공장 및 기업들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효과성(effectiveness)을 강조하게 되면서, 현실 사

<그림 3> 평균 연간 가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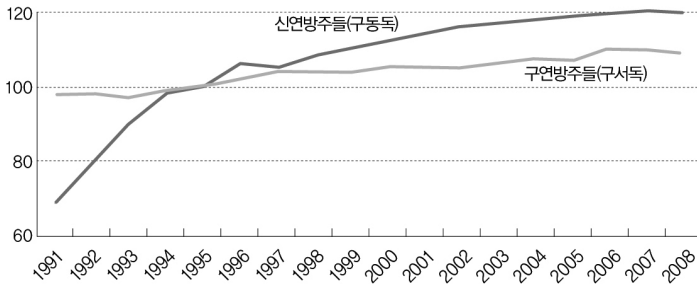
(단위: 유로)



자료: Marta Zawilska-Florczuk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srodek sutyow Wschodnich(OSW).

<그림 4> 동서독 지역에서 생산 효율성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Marta Zawilska-Florczuk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srodek sutyow Wschodnich(OSW).

회주의식 투자는 설비와 노동에 대한 과잉투자를 초래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통일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이었다. 생산 효율성은 서독 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았다(<그림 4> 참조). 그 결과 동독 지역의 탈산업화로 인해 동독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을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 결과 동서독 주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일정 정도 유지된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동서독 주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991년 이후 2011년까지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동독 주민들의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기에, 동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독일 사회는 통일 이후 줄곧 ‘내적 통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내적 통합은 상호 간 주관적 인식과 삶의 기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두 개의 상이한 체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경제 조건, 직업 선택, 교육체계와 기회 등과 같은 수많은 객관적 특성은 동등해지지만, 가족, 공동체, 지역 내부의 자원(지위, 소득 등)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삶의 조건에서의 차이는 내적 통합을 설명하는 특징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적인 통일은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포함하여 인식과 가치관이 주관적인 기대나 주관적인 비교 기준에 관련된 것이다. 내적 통합의 특징은 동서독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다. 상위 체계의 정비, 집단적 규칙과 행위 규범의 수용, 정서적인 공동체 귀속감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즉 내적 통합은 ① 경제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 ② 삶의 만족도, 가치관은 물론 동서독 사람들의 닮은 점과 같은 주관적 특성, ③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의미 부여, 동서독 사람들의 상호

작용, ④ 국가와 같은 공통적인 체제에서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광범위한 사회체계의 시민으로서 공통적인 목적, 가치, 규범의 존재 등이다(Trommsdorf und Kornadt, 2001: 367~368).

독일은 통일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동서독 시민들 사이의 ‘내적 통합’은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내적 통합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³⁾ 사실 마음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통합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서독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와 생산양식의 차이로 인해 삶의 양식이 달랐다. 이로 인해 가치와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다른 점을 보이게 되었다. 서독 사람들이 ‘개인’, ‘합리성’,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동독 사람들은 ‘집단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이에 적응해야 했다. 물론 이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동독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이다. 라이프치히의 현대사 포럼(zeitgeschichte Forum) 소장인 에커트(Eckert) 교수는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통일을 ‘평화 혁명(die friedliche Revolution)’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은 서독 시민들이 아니라 동독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에커트 교수의 주장처럼 통일이 동독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 동독 시민사회의 체제 저항이 곧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 이

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한국 사회연구지원사업(SSK) 연구팀은 마음을 가치, 정서, 사고방식으로 정의하고, 마음의 통합을 사회 통합의 궁극적인 형태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윤철기·양문수,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251~280쪽.

후 동독 시민의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에커트 교수의 설명처럼 동독 시민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통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후회와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한다. 분명 동독 시민들은 통일 이전까지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통일은 동독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동독 시민들은 통일 이후 분명히 ‘잃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독에서의 삶의 방식이 총체적으로 부정당했다고 생각한다. 동독 주민들은 여전히 동독에서 삶의 양식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독 지역이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에서도 수학과 물리학 등 기초과학에서 동독 지역이 우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 사회는 동독 사람들에게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동독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독에서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오히려 동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서독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동독 사람들에게 통일을 찬성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많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른바 동독 시민들 사이에 향수병, 즉 ‘오스탈기(Ostalgic)’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는 동독 시민 전체의 현상은 아니다. 반대편에는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⁴⁾ 동독 출신의 90%는 다시 과거 체제로 돌아가서 살수는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⁵⁾ 하지만 ‘내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지 경제적 영역에서만
 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론장에서 논의되었다. 동독인들의 동독에 대
 한 향수는 비단 언론의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동독에 대한 향수를 그린 영화, <굿바이 레닌
 (Good-Bye Lenin)>은 수많은 관객을 영화관으로 이끌었다.⁶⁾ 독일의 연
 구들은 동독에 대한 노스탈기(DDR-Nostalgie)는 “과거의 독일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긍정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규정했다.⁷⁾ 이러한 현상
 은 이후 동독의 생산물, 표어, 기호, 심벌(symbol), 동독의 일상 문화에
 대한 부활과 인기를 통칭하는 개념인 오스탈기 현상으로 발전했다.⁸⁾
 현재 독일에서 오스탈기 현상은 엄연히 실재한다.

동독 출신의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인 스테판 볼레(Stefan Wolle) 박사
 는 동독에서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을 막고 동독에서의 일
 상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를린 시내에 동독 박물관을 열었다. 특히
 볼레 박사는 통일 이후 서독의 젊은이들에게 “동독의 역사가 오늘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한다. 사실 서독
 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일 이후에도 동독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4) 현대사 포럼(Zeitgeschichte Forum)의 소장인 라이프치히대학 에커트(Rainer Eckert) 교수는 오스탈기(Ostalgie) 현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독 출신 가운데 통일 이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타지(Stasi) 박물관 힐머(Uwe Hilmer) 관장은 동독 출신들의 상실감을 강조했다.

5) 악셀 슈미트 괴델리츠(Axel Schmiat-Gödelitz), “독일 통일 후 내적통합: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2012-4).

6) Katja Neller, “(DDR-)Nostalgie, Ostalgie und Ostidentität,” in *DDR-Nostalgi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6), p.39.

7) *ibid.*, p.43.

8) *ibid.*, p.49.

한다. 반면 동독인들의 대부분은 서독 지역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동독인들은 이를 서독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서독인들은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독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일 이후에도 거주나 여행을 목적으로 동독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동독인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의 브로클로스(Holmer Blochlos) 교수 역시 마음의 통합은 여전히 독일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독 출신으로 평양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학자였다. 그는 통일 이후 동독 사회에서 이야기되거나 지켜지던 모든 가치가 부정당했고, 동독인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동독의 체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가치를 모두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분명 논리적으로 체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체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독 시민들 역시 동독의 체제와 사람들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서독 지역 시민들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복지과 재정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독 시민들은 동독 시민들을 위한 복지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991년 7월부터 납부하는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에 대해서 서독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⁹⁾ 연대세 외에도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구축

하는 과정에서도 재정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독 출신 독일인들은 동독 지역에 무관심한 편이다. 분명 통일 이전보다 동서독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동서독 사람들이 언제나 만나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서독 사람들은 동독과 통일하지 않았어도 서독은 “이미 잘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동독 지역과 동독인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서독 출신 독일인 가운데 동독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독일 『빌트(Bild-Zeitung)』지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통일 20년이 지났지만 서독인의 21%가 한 번도 동독 땅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단지 67%의 서독인만이 동독 출신과 결혼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동독인들은 단지 9%만이 서독을 가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동독인 78%는 서독인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다고도 답했다.¹⁰⁾¹¹⁾

독일인들의 74%가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정신적 차이(Mentalitäts-Unterschiede)’가 있다고 생각한다.¹²⁾ 동서독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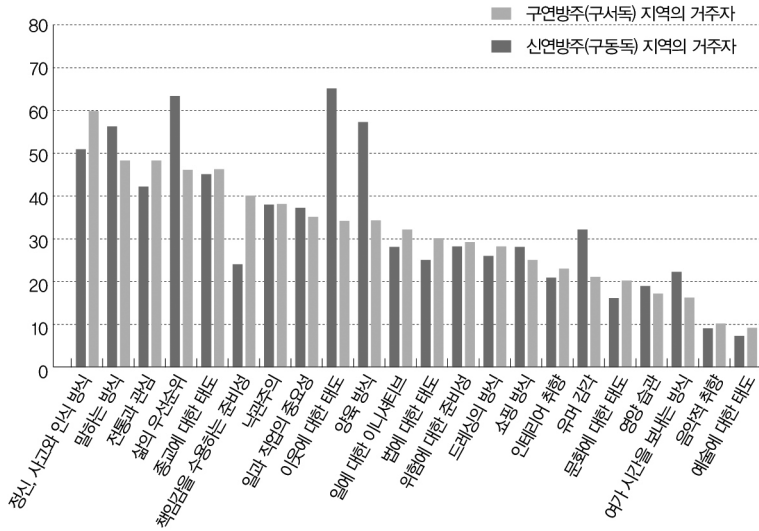
9) Olaf Schulemann, “Der umstrittene Solidaritätszuschlag: Mythen und Fakten,” Karl-Bräuer-Institut(2010).

10) “Nach 22 Jahren Deutsche Einheit: Jeder fünfte Westdeutsche war noch nie im Osten,” *Online Focus*,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nach-22-jahren-deutsche-einheit-jeder-fuenfte-westdeutsche-war-noch-nie-im-osten_aid_830662.html (검색일: 2014년 4월 1일).

11) 사실 동독 출신 역시 서독인들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이 만난 동독 출신 호프만(Joachim Hoffmann) 교수 부부는 자신의 딸을 이야기하면서, 서독 출신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자신의 딸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도, 가족의 일원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12) “Nach 22 Jahren Deutsche Einheit: Jeder fünfte Westdeutsche war noch nie im

<그림 5> “동서독 거주자들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답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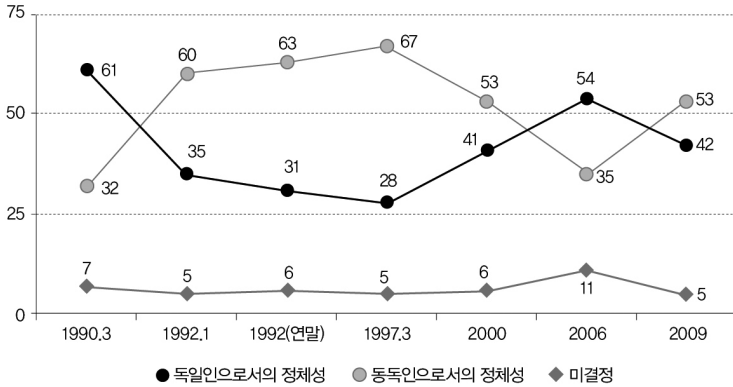
자료: Marta Zawilska-Florczuk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środek studiów Wschodnich(OSW).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정신(mentality), 사고와 인식 방식, 말하는 방식, 전통과 관심, 삶의 우선순위, 책임감을 수용하는 준비성, 낙관주의, 전문성, 이웃들에 대한 태도, 아이 양육방식, 일에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위험을 수용하는 준비성, 드레싱(dressing)의 방식, 쇼핑의 방식, 인테리어, 유머 감각, 영양 습관, 여가 시간 활용법, 음악의 기호, 미술에 대한 태도 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다. 동독인들은 특히 서독인들과 삶의 우선순위, 이

Osten,” *Online Focus*,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nach-22-jahren-deutsche-einheit-jeder-fuenfte-westdeutsche-war-noch-nie-im-osten_aid_830662.html (검색일: 2014년 4월 1일).

<그림 6> 동독인들의 정체성 경향

(단위: %)



자료: Thomas Ahbe, “Zur wechselseitigen Konstruktion westdeutscher und ostdeutscher Identitäten,” Vortrag auf der Tagung: Politische Kultur in Deutschland 20 Jahre nach der Vereinigung(2010), p.15.

웃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 양육방식 등에서 크게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독인들은 정신, 사고와 인식의 방식, 전통과 관습, 책임감 수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서독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서독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에 있다.

<그림 6>을 보면 동독 사람들은 통일 직후에는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체감한다. 아마도 이는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경향을 띤다. 특히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 기간에 걸쳐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통일 이후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독 사람들과의 차이를 절감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잠시 역전되었다가, 다시 2009년 이후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악화된다. 이는 정체성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25년이 넘었지만 왜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절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분명 독일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민당의 동독 출신 메르켈(Merkel)이 내각의 수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¹³⁾ 그렇지만 동서독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모일레만(Meulemann, 1996: 270)은 통일 이후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 평등(Gleichheit), 성과(Leistung), 공동 결정(Mitbestimmung), 수용(Akzeptanz)의 다른 이유를 분석하려 했다. 동서독 사람들은 40년 동안 상이한 사회헌법(Sozialverfassung)하에서 살았고, 상이한 역사를 경험했다. 사회헌법과 역사를 통한 특성은 통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독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의 서독과 동독의 사회헌법은 그 가치를 담지한 상이한 구조적 기회를 제공한다.

동서독은 ‘생활세계(Lebenswelt)’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의 존재 양식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동독에서 일상생활은 분명 소수의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지배되었다(Wolle, 2009: 213).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독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

13) “Nach 22 Jahren Deutsche Einheit: Jeder fünfte Westdeutsche war noch nie im Osten,” *Online Focus*,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nach-22-jahren-deutsche-einheit-jeder-fuenfte-westdeutsche-war-noch-nie-im-osten_aid_830662.html (검색일: 2014년 4월 1일).

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구동독의 권력에 의해서 감시와 통제를 받은 것이지, 그들의 삶 전체가 아니다. 동독 사람들에게도 간직하고 지키고 싶은 과거가 있다. 물론 이는 동독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과거의 동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향수라는 식의 환원론적 설명도 경계해야 한다. 통일 이전 누군가에 의해서 생활세계가 은밀하게 지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동독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켜온 가치와 문화들이 있다. 그것을 쉽게 지울 수는 없고, 또 강제로 지우려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독일 통일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 글은 독일에서 내적 통일(innere Einheit)이라 불리는 마음 통합의 문제를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와 상호작용

현재 국내외 ‘접촉 지대(contact zones)’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접촉 지대는 역사, 지역, 문화, 이데올로기적 분리를 경험한 주체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social spaces)이다”.¹⁴⁾¹⁵⁾ 이것이 사회적인 이유는, 다른 자아, 문화, 공동체의 만남에서 배제와 포섭, 충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

14) 이 글에서 접촉 지대에 대한 정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SSK 연구팀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공동연구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다.

15) M.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1991), pp.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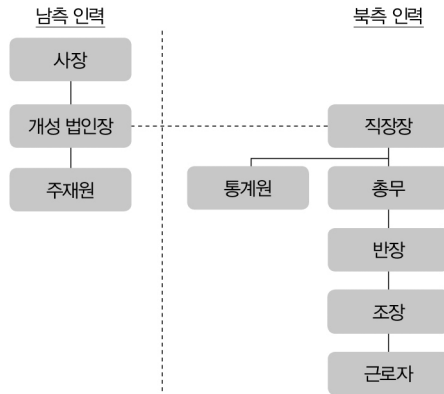
이 교차하며, 새로운 ‘우리’ 및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만드는 또 다른 ‘정체성(identity)’을 배태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빈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주조하는 틀이다.¹⁶⁾ 접촉 지대에서 관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특성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반영하게 된다.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탈북자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접촉면을 증가시켰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 만남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접촉면이 증가하게 된다. 접촉면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한 사람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관계와 마음체계의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북한체제에서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만남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고용관계 —관리자와 노동자—와 공여자-수혜자 간의 관계이다.

남북한 간 협력사업으로 인한 고용관계는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남측의 관리자와 북측의 노동자들 간에 형성되고 있다. 남측 입주 기업 경영자 및 관리자들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그림 7> 참조). 북측 근로자의 대표격인 직장장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주로 개성 현지 법인의 대표(법인장)가 북측의 직장장에게 각종 지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면 북측의 직장장이 반장-조장을

16) Anthony Giddens, *Profiles and Critique in Social Theo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144.

<그림 7>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체계



자료: 통일부

거치거나 직접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¹⁷⁾ 이 때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남측 기업 사람들은 북측의 직장장이나 총무에 대해 북측 근로자 대표 정도로 생각한다. 즉 남측 기업은 기업 내에서 남과 북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즉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북측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한다. 남과 북은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남측 사람들보다는 북측 사람의 인식이 이른바 ‘공간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사적인 접촉은 극히 제한된다. 북한 근로자가 남한 관리자와 만날 때, 결코 혼자 만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개인 간의 접촉에서도 당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북한의 경우

17)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9호(2012), 147~148쪽.

가 그렇다. 그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일 때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되고 있다(양문수·이우영·윤철기, 2013).¹⁸⁾ 즉 개성공단이란 접촉 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변화는 ‘외적 강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여자-수혜자 간의 관계에서 공여자는 대북 지원 활동의 증가로 인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이고, 수혜자는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 기관(주로 민화협)들은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제한하고자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일반적으로 공여자-수혜자 관계는 권력관계의 특성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남북한 간에는 반대로 자칫 권력관계의 모습이 나타날까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북한 기관과 주민들에 대해서 ‘검손’을 대단히

18)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 변화는 직접적으로 설문할 수 없다. 남한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변화일 수밖에 없다.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19) 대북 지원 단체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만남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북 지원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북한 정부가 남한의 시민단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와 북한 사람들이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지원 활동에서 자주 부딪치게 되는 북한 민화협 참사들에게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강조한다. 대북 지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대북 지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후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특성상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북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한다.

- (2)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남북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자본 - 임금노동 관계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이중의 자유’를 획득한다. 그래서 결국 북한 이탈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노동력의 판매조차도 어렵다. 한국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인해 한계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²¹⁾ 설령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 이하의

20) 대북 지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측 민화협 및 당국자들과의 갈등은 일정 정도 불가피했으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21)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오히려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취업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차라리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이 덜 차별받는 방법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저임금 노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이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는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잔업, 특근, 야근 같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았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그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길고 강도도 센 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의 비교할 때 높은 노동강도와 한국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저임금 상태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남한의 사장이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교류가 없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²⁾

- (3) 탈북자들은 이주 노동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가진 문제를 직접 체감함에 따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

22)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분야에서 종사하는 탈북자 46명과 인터뷰한 결과 회사 내에서 교류가 없는 경우일수록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도는 더욱 높았다. 상대적으로 회사에 적응을 잘한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승진이나 임금 수준면에서 한국 사람들과 비교할 때 뒤처지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다.

별이 가진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이주 노동자와의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남한 사장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는 엄연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 노동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4)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되는 분야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 분야이다. 탈북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남한 사람은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다. 북한생활에 익숙한 탈북자에게 남한의 서비스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탈북자들은 남한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의 서비스가 과도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서비스 노동 혹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피로도도 남한 사람과 비교할 때 더욱 높다. 그런데 더욱 힘든 점은 남한의 손님들과의 관계에 있다. 남한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때, 용어나 단어가 생소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되면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주문이 몰리게 된다. 결국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 때문에 손님은 물론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탈북자 가운데는 자신의 말과 말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팁’을 주는 문화 역시 낯설다.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동정을 받는 것 같아 언제나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알 수 있다.

- (5) 남북한 대화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표자 자격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대화에 참여하는 당국자들은 정부 혹은 국가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대화는 일반적인 외교회담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유엔 가입 문제를 놓고 남북한 간에 벌어졌던 신경전을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유엔동시 가입을 추진하지만,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로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했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모두 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자임하지만, 남북한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회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로, 남북한이 분단국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남북회담은 일반적인 국가 간의 회담과 달리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그뿐 아니라 남북한은 회담 과정에서 서로 자기체제의 ‘정당성’을 상대방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당성은 남북한이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거나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과 이데올로기를 연결시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회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예컨대 회담이 결렬되면 그것은 상대측의 이념과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교회담에서 참여국들의 기본목적은 ‘국가이익의 실현’이다. 국가 간에는 외교협상 과정에서 국익실현을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한다. 협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쟁하게 될 경우에는 종종 외교적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경쟁적인 관계에서도 타협점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 결렬되기도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국가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북대화 역시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외교협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남북대화 역시 남북한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축하는 장이다. 그렇지만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다. 남북대화에서 표출되는 양측의 이해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은 상대방의 대화 제안에서부터 의구심을 표명하게 된다. 남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제안하면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 실제로 남북한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슴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남북대화의 의제는 분단체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남북한의 긴장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대화에서 남북한은 우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바쁘다.

그렇지만 남북대화가 언제나 결렬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의 주권과 체제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성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북 대화는 여러 차례의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남북한 간에도 ‘공

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곧 남북한에게 국가이익이 반드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할 때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남북한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통일'이다. 하지만 남북대화에서 일차적인 공동의 이익은 '현상유지(status quo)'이다. 남북대화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체제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 실제로 남북대화는 더 이상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분단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4. 독일 사회 통합의 경험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남북한 사회 통합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사람들은 여러 접촉 지대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호작용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소외감'은 큰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Öffentlichkeit)'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온라인 북한 소식통’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 즉 남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부재하다.

독일 사회는 지난 25년 동안 ‘내적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사회와 연구진이 만난 비판적 지식인들은 내적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독일 사회는 파시즘을 경험한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가 ‘내적 통합’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래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동서독 사람들의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와 교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교회는 구동독 시절부터 ‘공론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물론 몇 차례의 만남과 대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가 중요하다.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동서독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독일 시민사회의 노력은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권위주의를 경험했다. 여전히 권위주의적 잔재들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가 때때로 사회를 동원하고 감시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가 마음의 통합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사회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경주(傾注)해야 한다. 특히 이는 결코 통일 이후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2만

6,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시민들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도 열세이다. 또한 그들은 북한사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생활양식을 배우고 적응할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모두 중요하다. 남북한은 정치·제도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분단 구조에서 남북한 관계의 특성상 정치적 이슈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 격차는 줄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은 GDP는 약 1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공장과 기업소 가운데 온전히 작동하는 공장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장 가동률을 20~30% 내외로 보지만, 통일이 되어서 가동되는 생산라인 가운데 실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라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면 생산효율성이 낮아, 이미 가동이 중단되었을 공장과 설비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일부 주요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공장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곧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탈산업화는 동독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

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회복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 경제의 수준으로 통일이 진행될 때, 통일 비용은 계산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그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것을 부담하려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물론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대북 지원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의 개발지원이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통일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북한 사람들 마음의 통합 문제는 오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원과 지역 하나센터의 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한 교육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 입국 이후 생활에서 남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다. 그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제 정부의 통일정책과 사회 통합 담론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남북한 사람들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접수: 5월 29일 / 수정: 6월 24일 / 채택: 6월 30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 슈미트 괴텔리츠, 악셀(Axel Schmiat-Gödelitz), “독일 통일 후 내적통합: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2012-04(2012).
-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9호(2012).
- _____, “개성공단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 윤철기·양문수,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 이우영·양문수·구갑우·이수정·윤철기, “접촉시대와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연구계획서(2011).
- 프리베(Priewe Jan)·히켈(Rudolf Hickel), 『독일통일비용 : 분단국가의 교훈』, 한종만 옮김, 서울: 대륙출판사(1994).
- 황규성, “통일독일 불평등과 사회국가의 정당성,” 『독일연구』, 25호(2013).

2. 해외 자료

1) 단행본

- Giddens, Anthony,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Oxford: Basil Blackwells, 1987).
- _____, *Profiles and Critique in Social Theo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Heiner, Meulemann, *Werte und Wertewandel*(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Verlag, 1996).
- Wolle, Stefan, *Die Heile Welt der Diktatur: Alltag und Herrschaft in der DDR 1971~1989*(Berlin: DDR Museum, 2009).

2) 논문

- Ahbe, Thomas, “Zur wechselseitigen Konstruktion westdeutscher und ostdeutscher Identitäten,” Vortrag auf der Tagung: Politische Kultur in Deutschland 20 Jahre nach der Vereinigung(2010).
- Allbus(Die allgemeine Bevölkerungsumfrage der Sozialwissenschaften), “Supplement zur Fragebogendokumentation ALLBUS-Kumulation 1980-2010,” Studien-Nr. 4574.
- Neller, Katja, “(DDR-)Nostalgie, Ostalgie und Ostidentität,” in *DDR-Nostalgi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6).
- Pratt, M,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1991).
- Schulemann, Olaf, “Der umstrittene Solidaritätszuschlag: Mythen und Fakten,” Karl-Bräuer-Institut(2010).
- Trommsdorff, Gisela und Hans-Joachim Kornadt, “Innere Einheit im vereinigten Deutschland?”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Opladen: Leske und Budrich, 2001).
- Zawilska-Florczuk, Marta and Artur Cien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srodek sutyw Wschodnich* (OSW).

3) 기타 자료

- “Nach 22 Jahren Deutsche Einheit: Jeder fünfte Westdeutsche war noch nie im Osten,” *Online Focus*.
-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nach-22-jahren-deutsche-einheit-jeder-fuenfte-westdeutsche-war-noch-nie-im-osten_aid_830662.html (검색일: 2014년 4월 1일).

독일 인터뷰 명단

날짜	이름	직업
2013/10/14	Prof. Dr. Joachim Hoffmann	전 뷔르츠부르크대학교 교수
2013/10/14	Thekla Hoffmann	전 동독 라디오방송국 PD
2013/10/15	Dr. Heinz-Joachim Elbe	전 서베를린 교사
2013/10/15	Dr. Stefan Wolle	베를린 DDR 박물관 관장
2013/10/16	Dr. Holmer Brochlos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2013/10/16	Norbert Lux	전 서베를린 교사
2013/10/16	Inge Lux	전 서베를린 교사
2013/10/17	Dr. Uwe Hilmer	베를린 슈타지(Stasi) 박물관 관장
2013/10/18	Prof. Dr. Rainer Eckert	라이프치히 소재 현대사 박물관 관장
2013/10/18	Bernd Luettege	라이프치히 소재 인쇄업자
2013/10/20 (E-mail 인터뷰)	Prof. Emer. Dr. Heiner Meulemann	켈른대학교 명예교수

The Lesson for the Mind Integ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 of ‘die Innere Einheit’ of Germany

Yoon, Cheol-g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present situation of so called ‘die innere Einheit’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o reason out a lesson for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Today, Germans don’t positively rate the unification. The living conditions of east-germans are definitely improved since the unification. But still there are the socio-economic gap between west and east Germans. East Germans felt rather an greater sense of deprivation before unification. So German society stresses the importance of ‘die innere Einheit’. However it has not been accomplished until now although the unification passed 25 years.

North-South Koreans have established relationships assuming the differen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in various contact zones since the

division. The min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in the various relationship of the contact zones operates interactively. Now we can't predict the direction of Inter-Korean's mind. The meeting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give them mor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each other, but the relationship isn't always improved. Specially it is important for North-Korean refugees to get felt alienated from South-Koreans. These problems can't be solved by the authority of government alone. It needs a spontaneous effort within civil-society. The Korean civil-society has to make efforts to succeed in establishing the public sphere which Inter-Koreans can constantly interac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Keywords: German unification, 'innere Einheit',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 contact zones, mind integration